



#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 124위 복자

### 복자 손경윤 제르바시오

(1760-1802)



1760년 한양의 양인 집안에서 태어난 손경윤 제르바시오는 1790년 최필공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했다. 그는 신해박해 때 두 차례나 체포되었으나 모두 석방되었고 그때마다 즉시 신앙을 회복할 만큼 열성적이었다.

회장으로 임명된 손 제르바시오는 최창현, 홍익만 등과 함께 공동체를 이끌었다. 그는 주문모 신부의 거쳐 마련에 힘썼으며,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아주 큰 집을 매입하여 바깥채는 술집으로, 안채는 집회소로 꾸며 공동체를 보호하기도 했다. 또한 틈틈이 교리서를 필사해 나누며 복음 전파에 전념했다.

그는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피신했다가 가족이 대신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죽음을 무릅쓰고 자수했다. 혹독한 형벌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순교를 결심하였다. 그의 최후 진술은 이러하다.

"일찍부터 천주교에 깊이 빠져 하루아침에 이를 바꾸기가 어려웠고, 일상의 고질 병처럼 되었습니다. …… 저는 천주교 때문에 여러 번 체포된 뒤에도 나라의 금령을 무시하여 (천주교에) 미혹된 마음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교우들과 체결하여 깊이 교리를 연구하였고, 널리 교리를 전하였습니다."

그는 1802년 1월 29일, 서소문 밖에서 42세의 나이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 부활 제6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이사 48,20 참조

환호 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8,5-8.14-17

화답송 시편 66(65),1-3ㄱ.4-5.6-7.16과 20(◎ 1)

### ◎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또는 ◎ 알렐루야.

○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 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1베드 3,15-18 (또는 4,13-16)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요한 14,15-21 (또는 17,1-11ㄴ)

영성체송 요한 14,15-1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 양 한 마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잠시 멈추어 봅시다. 루카 복음 15장에는 되찾은 양과 되찾은 은전, 그리고 되찾은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되찾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은 마태오 복음에도 나오지만, 다른 두 비유는 루카 복음에만 들어있는 고유한 부분입니다. 특히 되찾은 아들에 대한 말씀은 루카 복음이 보여주는 하느님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을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매끄럽게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되찾은 양의 비유에서는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루카 15,4)라는 구절이 걸림돌이 됩니다. 아흔아홉 마리를 목자 없이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면, 오히려 그 아흔아홉 마리 가운데 여러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한 마리를 구하자고 여러 마리를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언제나 큰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께 대해 말씀을 하신 것이었지만, 인간의 눈에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부당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충실하게 살았던 큰아들에게는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15,29) 없는데, 재산을 들어먹은 작은아들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적지 않은 이들이 이 복음을 읽으면서, 자신이 큰아들의 위치에 있다고 느낍니다. 스스로 아버지만큼 관대하고 자비롭다고 느끼기는 쉽지 않지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충실한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쉽게 확인을 해 본다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지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 흔히 두 부류로 갈라 집니다. 잘못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하지도 않고, 잘못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지도 않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작은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이지요. 특히나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4,18). 큰아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캐오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19,10)고 하십니다. 자캐오는 하늘 나라에 가까이 있었었습니다. 작은아들도 하늘 나라에 가까이 있었었습니다. 용서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도 루카 복음에 고유한 부분이지요(18,9-14).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사이는, 정말로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십일조를 바쳤지만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18,14).

되찾은 양의 비유를 기쁘게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이고 잃었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루카 복음은 나를 위하여 선포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



## 거룩한 교회, 거룩한 신자

「교회헌장」 제5장 제39항

「교회헌장」 제5장은 “교회의 보편적 성화 소명”이란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5장은 수도자에 대해서 다루는 6장과 연관이 깊은데, 공의회는 제2회기까지 두 장을 하나의 장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 비단 복음적 권고의 서원을 한 수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공의회는 보편적 성화 소명과 수도자에 관한 가르침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자의 성화 소명은 하느님 백성 전체의 그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편적 성화 소명”을 5장에서 먼저 언급하고 6장에서 “수도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5장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에서는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은 ‘모든 신자의 성화 소명’에 대해서, 세 번째 항에서는 ‘모든 신자의 성덕 실천’에 대해서, 끝으로 네 번째 항은 ‘성화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공의회는 「교회헌장」 1장과 2장에서 이미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 언급했으며, 5장에서는 교회 안의 성화 소명에 집중합니다. 먼저 “교회는 흠 없이 거룩하다고 믿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신앙 고백’에 나오는 이 언급은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홀로 거룩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교회는 ‘대영 광송’에서 그분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에페 5,21-33(아내와 남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관한 언급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25절)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

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26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선물로 가득 채워주셨기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교회의 신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신자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1테살 4,3 참조). 그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어, 성직자나 평신도의 구분 없이 모든 신자가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에페 1,4 참조). 이러한 거룩함은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맺어 주시는 은총의 열매를 통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복음적 권고의 실천은 세상에 대한 거룩함의 증거다.  
신자들에게 성수를 뿌리는 교황 레오 14세

먼저 신자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할 때 교회의 거룩함은 신자 개인에게서 나타납니다. 또한 교회의 거룩함은 복음적 권고 곧 청빈, 정결, 순명을 실천하는 수도자들에게서 고유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으로 개인이든 수도 생활을 통해서든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하는 복음적 권고의 실천은 교회가 거룩함으로 불리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며,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거룩함의 모범을 증언해야 합니다. 무력(武力) 앞에서 평화(平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

## 베트남 미사의 풍경들

주일 오후 2시, 녹양동 성당에서는 베트남어 미사가 거행됩니다. 베트남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 그리고 유학생들이 미사에 주로 참여합니다.

**풍경 하나.** 저는 작년 12월, 처음으로 베트남 신자들과 성탄 대축일 미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탄 성가들이 베트남어로 어떻게 불리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익숙한 성탄 성가가 단 한 곡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퍼뜩 어떤 생각이 떠올라 한국의 가톨릭 성가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상대로 한국의 성탄 성가들은 대부분 번역곡이었습니다. 반면, 베트남의 성탄 성가들은 베트남인들이 작사를 하고 작곡한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풍경 둘.** 베트남 신자들이 미사를 거행할 때 기본적인 자세는 팔짱을 끼는 것입니다. 신부님과 복사들만 합장을 하고 신자들은 미사 시간 내내 두 손이 보이지 않게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영성체를 할 때도 팔짱을 끼고 입으로 성체를 영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합장을 하고 미사에 참여하는 모습만 보다가 팔짱을 낀 베트남 신자들을 처음 보았을 때 깜짝 놀랐지만 이내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손을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은 상대방을 공경하는 태도이며 하느님 앞에 서있는 겸손한 신앙인의 태도라고 합니다. 팔짱을 끼고 있으니 말씀 전례에서도 매일미사를 보거나 주보를 보지 않고 오직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미사 전례 기도문이나 성가를 거의 외우기 때문에 성가책을 보지 않고도 힘차게 성가를 부릅니다.

**풍경 셋.** 평화의 인사 때 ‘평화를 빕니다’라고 소리 내지 않고 침묵 중에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미사의 경건한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베트남 가톨릭 문화의 특징입니다.

미사에 오는 베트남 유학생들 중에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 하는 청년들도 몇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청년 한 명에게 “한국말 정말 잘 하네요. 한국 사람 다 되었네요”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 말이 상대방에게 차별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별이나 혐오는 바꿀 수 없는 것들(예를 들면 피부색, 태어난 나라, 신앙이나 신념 등)을 부정하거나 바꾸려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폭력입니다. ‘한국 사람 다 되었네’라는 표현은 칭찬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차별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2018년 제104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주민, 난민이 제기하는 많은 도전에 대한 교회의 공동 대응은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은 이주민과 난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우는 동화(同化)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만남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서로의 문화와 전통 안에 담긴 가치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며,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더욱 충만히 드러내는 여정”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이 다 되었네’라는 말이 상대방의 정체성을 지우고 나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차별적인 표현입니다.

환대는 나와 똑같이 만들겠다는 획일적인 동화(同化)가 아닙니다. 환대는 나와 다른 언어와 문화가 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에 받아들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베트남 신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 신앙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하느님을 만나는 전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해 줍니다. ☺



**교구  
소식**

**신앙의 눈으로 만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 상반기(5~7월) 강의**

일시 5/7~7/23, 매주(목) 20시      담당강사 강한수 신부, 최대한 신부  
 회비 상반기 6만원 / 월 3만원      초빙강사 정은진(미술사학자), 박찬이(음악미술 칼럼니스트)  
 장소 백석동 성당      문의 031-908-6811 백석동 성당 사무실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5/16(토) 14시      장소 혜화동 대신학교

**백석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일시 5/24(주일) 16시      장소 백석동 성당 지하1층 대강당  
 주례 김종민 하비에르 신부      문의 010-2093-4519 백루시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론 상반기 강의**

	일시	주제	강사
1강	6/13(토) 10시	구원 역사와 교회	김정일 안드레아 신부
2강	6/20(토) 10시	교회의 신비	왕태언 요셉 신부
3강	6/27(토) 10시	하느님의 백성	강한수 가롤로 신부
4강	7/4(토) 10시	교회의 구조	이종경 비오 신부
장소	신앙교육원 의정부 본원(교구청 옆)		

교육비 3만원(4주간 강의와 교재비)      문의 031-850-1487 사목연구소



**한마음 사계 피정 - 6월, 7월(대침묵 피정) /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의집**

	6월	7월
일시	6/19(금)~21(주일)	7/3(금)~5(주일)
강사	노경득 블라시오 신부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주제	영혼을 빛내는 신앙의 발자취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

피정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특별헌금**

**결과보고**

**헌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29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헌금**으로 **153,390,295원**이 모여졌습니다.  
 이는 사회사목국으로 보내져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5/15(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  
주제: 사람 설명서  
강사: 최경숙 루시아(인천교구)  
문의: 010-2127-0032

**아카페성령기도회 영성강좌**

일시: 매주(수) 18:30~20:30, 길음동 성당 소성전  
5/13 김기화 도미니코 신부, 5/20 양창우 요셉 신부  
5/27 봉하령 요셉 신부, 6/10 이상기 가브리엘  
문의: 010-9248-8151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아름다운 황혼의 삶: 5/15(금)~16일(토)  
내안의 생명력 되찾기 피정: 5/16(토)~17(주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운정)  
신청: 010-9099-2337, www.jesumaum.org

**3지구 매월 셋째(토) 무료 치유피정**

일시: 5/16(토) 11시~16시, 갈현동 성당 지하 강당  
내용: 말씀치유기도·찬양·미사·안수(점심무료제공)  
강사: 김종일 베네딕도 신부 말씀선교회  
문의: 010-2435-3737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 이시돌 목장에서 쉬고 함께  
제주의 봄여행과 한라산, 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공동체  
제주교구 성모의밤 포함: 5/28(목)~30(토)  
추자도 성지순례: 5/31(주일)~6/3(수)  
7/1(수)~4(토), 9/1(화)~4(금)  
한라산철쭉, 자연순례: 5/21(목)~23(토)  
6/5(금)~7(주일), 6/13(토)~15(월)  
6/20(토)~22(월), 6/23(화)~25(목)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예수님 마음과 함께 하는 피정**

일시: 6/13(토)  
장소: 고양 예수성심전교 수도원 관구  
대상: 40세 이하 미혼 남녀  
문의: 010-2817-3101 예수성심전교남녀수도회

**본당 제 단체를 위한 1일피정 및 대관 안내**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한국관구 본원(고양시 덕양구)  
에서 본당 제 단체들을 위한 1일 피정 및 장소 대관을  
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제 단체들은 문의 바랍니다.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매월 첫 화요일 오후 피정 - 토당동 마리아니스트센터**

예수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일시: 5/12(화), 6/2(화) 14시~16:30  
장소: 마리아니스트 센터(덕양구 호수로 76-13)  
내용: 묵주기도, 성체조배, 영성강의, 미사, 안수  
강사: 장희성 프란치스코 신부(마리아니스트센터 관장)  
문의: 010-9585-6283(무료)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내**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5/29(금)~31(주일)  
신약완독: 6/18(목)~21(주일)  
성경완독: 7/24(금)~8/1(토), 8/14(금)~22(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토아올람 화요일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5/12 이창진 신부,  
5/19 성시간, 연도, 위령미사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수곡길: 6/19(금)~21(주일) / 우도: 7/24(금)~26(주일)  
마라도 순례: 7/3(금)~5(주일), 7/10(금)~12(주일)  
8/21(금)~23(주일)  
한라산 숲길: 7/17(금)~19(주일)  
추자도 성지순례: 6/4(목)~7(주일), 6/8(월)~11(목),  
9/4(금)~7(월), 9/11(금)~14(월),  
10/31(토)~11/3(화)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가정선교회 영성학교**

시간: (화), 12:30~16:30 <월 3회>  
장소: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일정: 5월 성모, 6월 성체, 7월·9월 성경,  
10월 성가정 학교  
교육비: 전액 15만, 월 3만(현장접수가능)  
실험 131-022-652844 가정선교회  
강사: 김연범 신부, 김재덕 신부, 박현민 신부,  
송봉모 신부, 양승국 신부, 윤민재 신부,  
전삼용 신부, 최황진 신부, 한연흥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전례음악 봉사자(반주자, 성가대원)교육**

장소: 체칠리아 오라토orium(양주덕정역앞)  
강사: 신승복, 김준홍, 김옥순  
내용: 성가대원을 위한 발성  
가톨릭성가 및 CCM 반주  
문의: 031-928-6784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문의: 02-2258-8480, 8437

**성가발성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 시스띠나음악원: 매주(금) 11시  
문의: 010-9842-8818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복음나누기**

일시: 첫째,셋째 (금) 20시~21시  
대상: 20~40세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

**2026년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채용**

접수: 5/10(주일)까지  
분야: 영상PD, 편집, 기자, 총무, IT, 아카이브,  
광고영업, 선교후원, 기술  
문의: 02-2270-2116 / 채용홈페이지 참조

**피에타스 가톨릭시니어합창단 단원 모집**

성가 발성지도 및 교구활동, 음악미사 봉헌  
연습: 매주(수) 19:40, 정발산 성당  
문의: 010-3330-3725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살레시오회	상시	대림동 수도원	010-6221-3520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5/16(토) 14시	개화동 수도원(서울)	010-3800-1579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청소년·청년 남자 성소자 모집		010-5195-3217

서강대학교 [슬기로운 영성생활]

일시: 5/18(월) 14시~16시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주제: 나이 들, 새로운 소명 I - well dying 선종의 은총
강사: 예수회 손우배 신부
기타: 강의와 미사로 진행, 무료
문의: 02-705-4711

광탄 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업무: 사무행정, 회계업무, 행사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접수: 5/31(주일) 까지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tree949@uca.or.kr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2026년 정기 세미나

일시: 5/16(토) 14시부터
장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강당(광진구 면목로 74)
주제: AI 시대, 가톨릭 교육: 생명의 교육을 위한 이해와 적용
문의 및 신청: 02-460-7625, edu@cbck.kr

덕정 성당 성가대 교중 반주자 모집

일시: (주일) 교중미사 전/ 교중미사 후
자격: 성가대 반주 경험자나 전공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제출
접수: pen356@uca.or.kr / 덕정 성당 사무실
※ 소정의 봉사료 지급

(사)한국카리타스협회 직원 채용

분야: 국내 사회복지 1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실무 경력자 우대)
접수: 5/11(월) 18시 접수 서류까지
ckna@caritas.or.kr
※ 홈페이지 www.caritas.or.kr 참조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40대 가톨릭 신자
활동: 주일 16시 및 대축일 미사 등
오디션: 5/17(주일) 17시, 명동대성당
※ 명동 성당(단체모집란) / 로고스합창단 홈페이지 참조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성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https://blog.naver.com/ggreen1004

일본 성모성지순례 안내

5/27아까다 성모성지순례 4일
아시아나 탑승, 지도사제 동행
문의: 성심여행사 010-5909-5997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44일

9/17(목) / 비용: 599만원(+2,500유로)
루르드 3박, 파티마 2박 포함 / 가톨릭 트래블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8/11(화) 유럽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12일)
8/13(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12일)
9/7(월) 산티아고 117km 도보 순례(12일)
9/8(화) 이탈리아 (전대사) 특별 순례(11일)
10/12(월) 체코 독일 폴란드 헝가리 (12일)
10/14(수) 이탈리아 프랑스 메주고리에(12일)
10/19(월) 튀르키예 그리스(12일)
문의: 02-319-2533 가톨릭회관619호
※ 홈페이지 www.catholictravel.co.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모집

7월 / 캐나다 성모성지 (9박10일)
11월 / 멕시코&칸쿤 성모성지 (10박11일)
문의: 010-5735-4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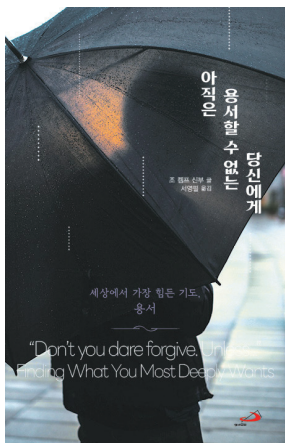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6/1(월) 프랑스일주(12일, 580만원)
6/4(목) 코카서스2국(10일, 425만원)
10/2(금) 다낭성모발현지(5일)
10/14(수) 유럽4국 성모발현지(12일)
10/19(월) 스페인남부,포르투갈(12일)
10/21(수) 메주고리에 순례(11일, 399만원)
10/28(수) 발칸,메주고리에(11일, 495만원)
11/9(월) 알프스와 중부유럽수도원(12일)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6/23(화)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5일, 160만원)
(장춘, 길림, 이도백하, 백두산, 용정, 연길, 도문)
7/7(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60만원)
7/16(목)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69만원-제한절 연휴)
8/12(수) 김대건. 최양업신부님과 안중근의사 발자취
(하얼빈, 장춘, 단둥, 차쿠, 대련-5일, 180만원)
9/14(월)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9만원-추석연휴)
10/12(월) 발칸3국 및 메주고리에(10일, 498만원)
10/26(월)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12일, 64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DIocese of Uijeongbu



신/간/소/개

세상에서 가장 힘든 기도, 용서

아직은 용서할 수 없는 당신에게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게 할 힘이 없습니다.

배신, 상처, 복수심은 헤어내기 쉽지 않은 강력한 감정이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힘, 그리고 마음을 찾기까지의 여정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저자는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뚫고 지나가는 길을 제시해 준다. 사제 특유의 사목적 문체로, 우리 마음에 진정된 치유가 깃들 수 있도록 천천히 다정하게 인도해 준다. 마음속 깊은 상처는 오래도록 그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우리 앞에는 나아갈 길이 있다. 빛과 평화의 길이다. 이 책이 그 길에 들어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 캠프 신부 | 서영필 옮김
224면 | 14,000원 | 성바오로출판사

# 평화와 화합

제13회 삶의향기  
원고 공모전



04  
·  
19

DIocese OF UJEONGBU

07  
·  
26

##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마태 5,9)

의정부교구 신자를 대상으로 신앙 체험 수기를 공모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하느님의 은총으로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 은총을 체험하신 여러분의 소중한 신앙 체험을 나누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 수필, 편지글 200자 원고지 기준 7매 이내  
(한글 프로그램 작성 시 A4 1장 이내, 11pt, 줄 간격 160%)  
※ 성명, 세레명, 본당,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이메일 gongmo@uca.or.kr  
우 편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61 천주교의정부교구청 4층 홍보국


**기간** 4/19(주일) ~ 7/26(주일)

**발표** 8/16자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 수상자에게는 개별통지 합니다.

**시상** 최우수(1편) 50만원 / 우수(2편) 각 30만원 / 장려(3편) 각 20만원  
※ 참가 작품 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자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문의** 031-850-1433 홍보국

[www.uca.or.kr](http://www.uca.or.kr)

 천주교의정부교구

PAX ET CONCORDIA